

생성형 AI가 만드는 가짜 뉴스

초등 교과 연계표

- (3-1 사회) 3. 교통과 통신 수단의 변화
- (4-2 사회) 3. 사회 변화와 문화의 다양성
- (5-2 도덕) 4. 밝고 건전한 사이버 생활

조남철 글 | 김석 그림 | 146쪽

“팩트 체크로 뉴스를 제대로 가려낼 수 있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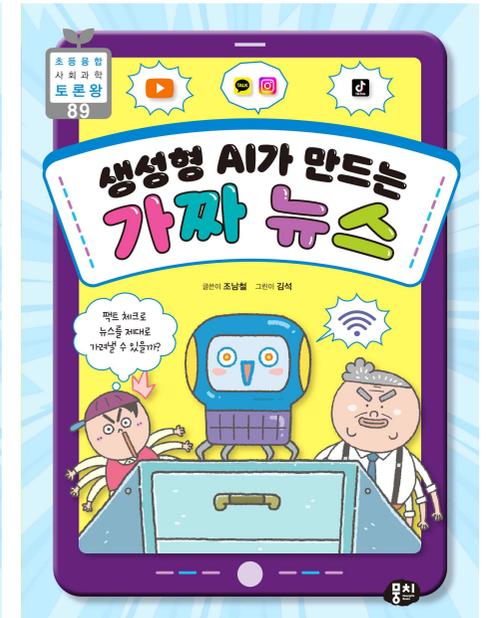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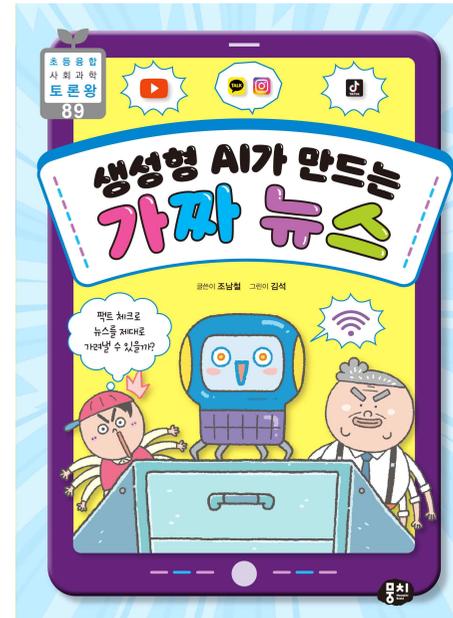
읽기 전_생각 열기	읽기 중_이해-사고력 높이기	읽은 후_생각 펼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틀린 그림 찾기 · 낱말 탐구하기 	초성 퀴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성형 AI 역할 체험 · 신문 기사 만들기 · 가짜 뉴스 구별하기
	빈칸 채우기	
	진실? 혹은 거짓?	
	가짜 뉴스 주요 출처 알아보기	
	가짜 뉴스 깊이 알기	

읽기 전

틀린 그림 찾기

생성형 AI가 만드는 가짜 뉴스

다음은 <생성형 AI가 만드는 가짜 뉴스>의 표지예요. 두 표지를 잘 살펴보고, 어떤 부분이 다른지 동그라미 표시해 보세요. (총 5곳)



표지만 보고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지 여러분의 생각을 간단하게 써 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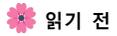
.....

.....

.....

.....

.....



읽기 전

낱말 탐구하기

생성형 AI가
만드는 가짜 뉴스

<생성형 AI가 만드는 가짜 뉴스>와 관련된 낱말이에요. 뜻을 읽고 알맞은 낱말을 골라 써넣으세요.

보기

미디어 리터러시, AI, 언론, 생성형 AI, 가짜 뉴스, SNS

1	Artificial Intelligence의 줄임말. 우리말로 풀이하면 '인공 지능'이다. 인공 지능이란 사람의 지능이 할 수 있는 학습, 사고, 추리, 논증 등의 능력을 갖춘 컴퓨터 시스템이다.
2	사람이 만든 것을 보고 배우며 새로운 것을 만들어 내는 인공 지능 기술. 사용자가 명령을 내리면 그림도 그려 주고, 글도 써 주고, 음악도 만들어 준다.
3	매체(미디어)를 통해 어떤 사실을 알리거나 어떤 문제에 대해 여론을 이루는 활동. 대표적인 언론 매체로는 신문, 텔레비전, 라디오, 잡지 등이 있으며, 8다리일보와 타란툴뉴스와 같이 언론을 담당하는 회사를 언론사라고 한다.
4	Social Network Service의 줄임말로, '사회관계망서비스'라 풀이한다. 사용자끼리 자유롭게 의사소통을 하고, 정보를 나눌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이다.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네이버 밴드 등은 대표적인 SNS다.
5	뉴스란 말 그대로 풀이하면 '새로운 소식'인데, 보통 매체(미디어)에서 전하는 '뉴스'를 가리킨다. 가짜 뉴스는 사실과 다른 뉴스로서 역시 매체에서 전하는 소식을 말한다. 악의적으로 만드는 경우가 많아서 종종 사회적 문제가 된다.
6	'미디어(media)'와 '리터러시(literacy)'의 합성어다. 리터러시란 문자화된 기록물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뜻한다. <input type="text"/> 란 미디어의 기록물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인데, 비판적으로 수용하고 소통할 수 있는 능력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다.



읽기 중

초성 퀴즈

생성형 AI가
만드는 가짜 뉴스

다음 설명을 읽으며 빈칸을 채워 보세요. 초성은 힌트입니다.

1 타란툴뉴스는 각종 과 광고비로 돈은 많이 벌었지만 그 어떤 국민 거미에게도 신뢰받지 못했다. 위기에 처한 타란툴뉴스는 직접 뉴스 전문 방송사를 차리고 물밑으로 유명한 기자 거미들에게 스카우트 제의를 하기 시작했다. 부패한 언론이라는 오명을 벗고 싶었기 때문이다.

2 그러나 털보리 국장은 이 영상이 인 것을 한눈에 알아차렸다. 영상 속 거미는 자신의 신원은 쏙 빼놓은 채 뉴스를 전했다. 어느 언론사에 소속되었는지, 어떤 신분으로 취재하고 있는지 알 수 없었다.

3 그러자 챗GPT는 요즘 언론사에서조차 기자 거미를 대신해 AI가 기사를 쓴다고 했다. 스포츠 경기 결과나 날씨 예보, 금융 시장 업데이트 정도는 AI가 혼자서 충분히 기사로 작성할 수 있다면서 말이다.

4 실랑이 국장은 참니 수프에 유리하도록 방송을 보도한 뒤 내내 마음이 불편했다. 그렇기에 털보리 국장이 이번 사건을 파고들고 있다는 걸 알게 된 이상 모른 척할 수 없었다. 아니 오히려 믿을 만한 기자가 취재하고 있다는 사실이 반가웠다.

가짜 뉴스에 관한 다음의 글을 읽고, 빈칸에 적절한 말을 <보기>에서 찾아 아래 번호에 써넣으세요.

보기
가짜 뉴스, SNS, 스마트폰, 딥페이크, 저작권

① 란 인공 지능을 기반으로 활용한 인간 이미지 합성 기술입니다. 기존에 있던 인물의 얼굴이나 특정한 부위를 영화의 CG처럼 합성한 영상 편집물을 말합니다. 현재 ① 기술은 인물의 얼굴을 본 떠 영상에 그대로 입히는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2023년 3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경찰에 체포되는 모습을 담은 가짜 사진이 ② 를 통해 널리 퍼졌습니다. 이 사진은 엘리엇 히긴스가 이미지 생성 AI인 미드저니를 통해 제작했습니다. ① 는 유명인의 사진 몇 장만으로 실제로는 하지 않은 말과 행동을 꾸며낼 수 있습니다. 당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경찰에 체포됐다는 ③ 도 확산되었습니다.



①	②	③

<생성형 AI가 만드는 가짜 뉴스> 전체를 읽고 다음 설명이 진실인지 거짓인지 판별해 보세요.

① 털보리 국장이 기자로 활동하던 시절에는 모두 종이 신문을 보았다. 그때는 능력이 부족한 기자가 1면을 맡아 썼다. 밤새 인쇄된 종이 신문은 다음 날 이른 새벽 전국으로 뿌려졌지만, 거미들은 1면에 별 관심을 두지 않았다. **진실 / 거짓**

② 털보리 국장은 유튜브에서 팔코미 할머니가 영원히 살기 위해 어린 거미들을 넣고 마법 수프를 끓인다는 내용의 영상을 보고 가짜 뉴스인 것을 한눈에 알아차렸다. 영상 속 거미가 자신의 소속과 신분을 밝히지도 않았고, 뚜렷한 증거도 없이 뉴스를 때문이다. **진실 / 거짓**

③ 휘강이는 뉴스 기사를 스마트폰으로 읽지 않냐는 털보리 국장의 물음에 그렇다고 대답했다. 또한 8다리일보의 기사를 읽는 거미가 없으니, 직접 팔코미 할머니를 대변하는 글을 SNS에 올리는 게 낫겠다는 말에 화를 냈다. **진실 / 거짓**

④ 휘강이는 스마트폰을 털보리 국장에게 내밀어 SNS로 빠르게 퍼지고 있는 팔코미 할머니에 관한 가짜 뉴스를 보여 주었다. 털보리 국장은 예상보다 가짜 뉴스가 빠르게 퍼지고 정확하지도 않은 후속 기사가 쏟아지는 상황에 충격을 받았다. **진실 / 거짓**

⑤ 타란툴뉴스의 실랑이 앵커는 팔코미 할머니에 관한 소문이 사실인지 확인하기 위해 직접 팔코미 할머니를 인터뷰하며 팩트 체크를 했다. **진실 / 거짓**

⑥ 촘촘니 사장은 수프 가게의 매출을 높이기 위해 생성형 AI를 이용해 팔코미 할머니의 수프에 문제가 있다는 내용의 가짜 뉴스를 만들어 퍼뜨렸다. **진실 / 거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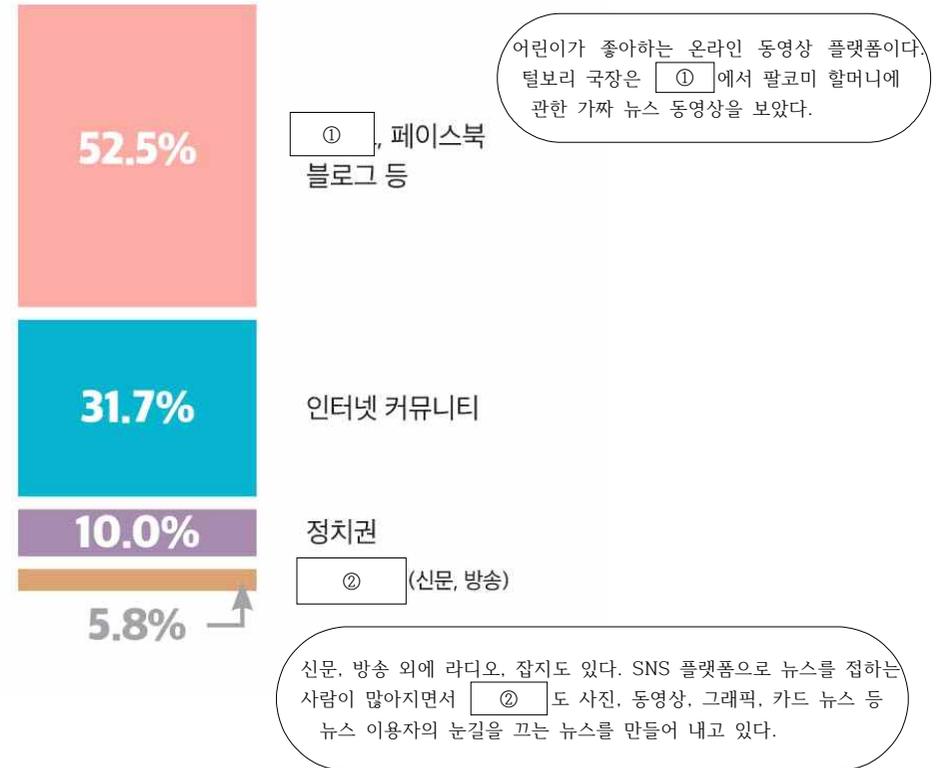
⑦ 타란툴뉴스의 팩트 체크 방송이 나간 직후 거미 마을은 난리가 났다. 어느 마을에서 든 거미들은 모이기만 하면 팔코미 할머니에 관해 이야기했다. 인터넷과 각종 SNS 역시 하루 종일 팔코미 할머니에 대한 괴소문으로 도배되었다. **진실 / 거짓**

⑧ 타란툴뉴스의 팩트 체크 방송은 가짜 뉴스에 날개를 달아 주었다. 사라진 팔코미 할머니를 찾아내 흔적을 내주고 정의를 구현하겠다고 혈기 왕성한 거미들이 단체를 조직했고, 팔코미 할머니가 어린 거미들의 노동력마저 착취했다는 새로운 의혹이 제기되어 노동청이 조사에 들어간다는 말도 나왔다. 실랑이 국장은 이런 상황에 무척 기뻐했다. **진실 / 거짓**

⑨ 털보리 국장은 가짜 뉴스의 가장 큰 특징이 '특정 집단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만든다'는 것을 알고 타란툴뉴스와 촌니 수프의 관계를 의심한다. 이에 시민 기자로 활동하기로 한 휘강이는 촌니 수프에 아르바이트생으로 들어가 잠입 취재를 벌인다. **진실 / 거짓**

⑩ 휘강이는 촌니 수프의 컴퓨터에서 우연히 촌촌니 사장이 챗GPT와 나눈 가짜 뉴스 관련 대화 기록을 발견하고, 촌촌니 사장이 팔코미 할머니에 대한 가짜 뉴스를 만든 장본인이라는 것을 알아낸다. 하지만 촌촌니 사장에게 들켜 끝내 진실을 밝히는 데 실패한다. **진실 / 거짓**

가짜 뉴스 주요 출처를 알려 주는 막대그래프예요. 의 설명을 읽고 아래 번호에 알맞은 낱말을 써넣으세요.



①	②

촉촉니 사장의 설명을 읽고 맞는 것에는 ○, 틀린 것에는 X로 표시하세요.

	<p>나는야, 촉촉니 사장이야. 수프도 잘 만들지만 가짜 뉴스는 더 잘 만들지. 내 말에 맞는 것에는 ○, 틀린 것에는 X를 해 봐.</p>
---	--

내용	O, X
① 가짜 뉴스를 지어내는 이유? 우선 돈을 벌기 위해서야. 사람들이 많이 접속하는 사이트나 유튜브는 구독자 수나 조회 수에 따라 광고 수익을 낼 수 있거든. 자기만족을 위해서 가짜 뉴스를 만드는 사람도 있고, 지지하는 정치 세력을 위해서 정치적 도구로 쓰려고 만드는 사람도 있지.	
② 언론사의 주 수입은 광고야. 그래서 언론사에서는 광고성 기사를 내기도 해. 광고주에게 돈을 받고 제품의 좋은 면을 뉴스 기사처럼 써 주는 거야. 광고성 기사는 광고가 목적이기 때문에 결코 진짜 뉴스가 아니야. 가짜 뉴스와 완전히 똑같아!	
③ 내가 생성형 AI로 팔코미 할머니가 어린 거미로 수프를 만든다는 가짜 뉴스를 지어냈다고? 틀렸어. 순전히 내 똑똑한 머리로 지어낸 거라고. 생성형 AI 기술은 아직 가짜 뉴스를 지어낼 만큼 발전하지 않았어. 날씨 예보도, 스포츠 경기 결과도 알려주지 못하는걸.	
④ 가짜 뉴스에 속기 싫으면 언론사의 이름, 기자 이름, 기사 작성일부터 확인해 봐. '좋아요' 같은 공유 수가 정상 범위를 넘어 지나치게 많은 것도 가짜 뉴스일 확률이 높아.	
⑤ 예전에는 전문적인 언론인만 뉴스를 생산했지만 요즘에는 누구나 SNS와 유튜브를 통해 뉴스를 생산해. 유통도 하고. 유통 속도는 또 얼마나 빠르지! 그러니까 조심하라고. 가짜 뉴스인지 알아내려는 노력 없이 무작정 퍼뜨렸다가는 자기도 모르게 가짜 뉴스 유포자가 될 수 있으니까.	
⑥ 가짜 뉴스를 만들고 또 유포하는 일이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행동은 아니야. 관련 인물이나 업체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동은 더욱더 아니고.	
⑦ 요즘 아이들은 스마트 기기로 영상, 글, 이미지, 하이퍼링크 등을 활용해 자신을 표현하고, 정보도 공유하며 지내. 그래서 미디어를 통해 올바른 정보를 습득하고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해. 즉, 미디어 리터러시가 필요하다는 거지.	

내가 생성형 AI가 되어 다음의 질문들에 자유롭게 답변을 해 보세요.

보기

질문: 뉴스의 조건은 무엇이지? 사건이면 다 뉴스가 되는 거야?



뉴스는 특정 기준을 충족해야 해요. 중요하고 의미 있는 사건, 사회적으로 관심을 끌 수 있는 사건, 공익을 위한 정보 등이 뉴스가 될 수 있어요.

질문 1: 미디어의 뜻은 무엇인지, 미디어에는 무엇이 있는지 알려 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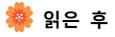


질문 2: 사람들이 가짜 뉴스에 현혹되는 이유가 뭐야?



질문3: 생성형 AI가 가짜 뉴스에 미치는 영향을 간단히 말해 줘.





읽은 후

신문 기사 만들기

생성형 AI가
만드는 가짜 뉴스

시민 기자 휘강이의 설명을 참고해서 직접 신문 기사를 작성해 보세요.



기사 쓰기의 기본은 사건을 꾸밈없이 있는 그대로 전하는 거야. 기사를 쓰는 사람의 관점이 담기기 쉬워서 감정에 치우치지 말아야 해. 문장은 짧게 쓰고, 낱말은 쉬운 것을 쓰는 게 좋아. 문장이 길거나 낱말이 어려우면 독자가 읽기 힘들거든. 제목을 잘 쓰는 것도 중요해. 제목이 눈길을 끌지 못하면 그 기사는 외면당하기 쉽지. 그렇다고 자극적인 제목, 거짓말로 유인하는 제목은 안 돼! 참, 육하원칙을 지키는 것도 꼭 기억해.



읽은 후

가짜 뉴스 구별하기

생성형 AI가
만드는 가짜 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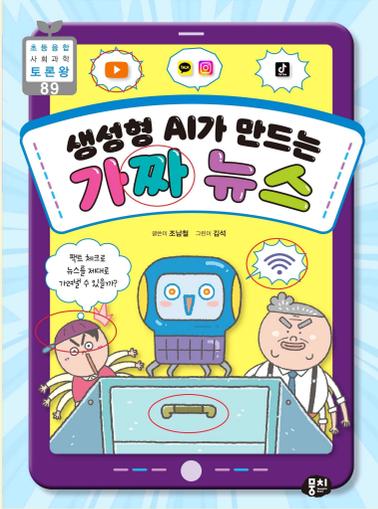
뉴스를 볼 때 아래 체크리스트를 참고하세요. 그러면 가짜 뉴스와 진짜 뉴스를 구별할 수 있게 될 거예요.

①	언론사의 이름, 기자 이름, 기사 작성일이 나와 있는지 확인한다.	<input type="checkbox"/>
②	실체가 있는 전문가인지 확인한다.	<input type="checkbox"/>
③	믿을 만한 언론사에서 나온 기사인지 확인한다.	<input type="checkbox"/>
④	믿을 만한 언론사에서 나온 기사인지 확인한다.	<input type="checkbox"/>
⑤	참고자료의 출처가 명확한지 확인한다.	<input type="checkbox"/>
⑥	기사나 글을 처음 접한 곳이 어디인지 확인한다.	<input type="checkbox"/>
⑦	공유 수가 비정상적으로 많지는 않은지 확인한다.	<input type="checkbox"/>
⑧	상식에 어긋난 내용이 포함돼 있지 않은지 확인한다.	<input type="checkbox"/>
⑨	기사가 너무 한쪽의 입장만 나와 있는 건 아닌지 확인한다.	<input type="checkbox"/>
⑩	기사 제목이 자극적이지 않은지 확인한다.	<input type="checkbox"/>



89 생성형 AI가 만드는 가짜 뉴스 독후 활동지 해답 및 답안 예시

(2쪽) 읽기 전_생각 열기 : 틀린 그림 찾기



(3쪽) 읽기 전_생각 열기 : 낱말 탐구하기

1. AI 2. 생성형 AI 3. 언론 4. SNS 5. 가짜 뉴스 6. 미디어 리터러시

(4쪽) 읽기 중_이해·사고력 높이기 : 초성 퀴즈

1. 후원금 2. 가짜 뉴스 3. 생성형 4. 팩트 체크

(5쪽) 읽기 중_이해·사고력 높이기 : 빈칸 채우기

① 딥페이크 ② SNS ③ 가짜 뉴스

(6~7쪽) 읽기 중_이해·사고력 높이기 : 진실? 혹은 거짓?

1. 거짓 2. 진실 3. 진실 4. 진실 5. 거짓 6. 진실 7. 진실 8. 거짓 9. 진실 10. 거짓

(8쪽) 읽기 중_이해·사고력 높이기 : 가짜 뉴스 주요 출처 알아보기

① 유튜브 ② 언론 매체

(9쪽) 읽기 중_이해·사고력 높이기 : 가짜 뉴스 깊이 알기

1. O 2. X 3. X 4. O 5. O 6. X 7. O

(10쪽) 읽기 후_생각 펼치기 : 생성형 AI 역할 체험

(예시 답안)

1. 미디어의 사전적 의미는 '어떤 작용을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물체 또는 수단'이에요. 미디어에는 신문, 라디오, 텔레비전, 컴퓨터를 비롯해 우리가 매일 손에 들고 다니는 스마트폰도 포함됩니다.
2. 가짜 뉴스는 자극적이거나 충격적인 제목으로 호기심을 건드립니다. 이 호기심에 이끌리면 가짜 뉴스에 쉽게 현혹될 수 있지요. 또한 가짜 뉴스는 종종 우리 사회를 불안하게 만드는 내용을 포함하기도 합니다. 누구에게나 위험하거나 위협적인 상황에 대한 정보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러한 경향은 가짜 뉴스에 더 폭 빠져들게 만듭니다.
3. 생성형 AI 기술로 만든 가짜 뉴스는 허점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가짜 이미지가 가짜 동영상을 거의 완벽하게 만들기 때문이죠. 게다가 만드는 방법도 쉽습니다. 그래서 특정인의 얼굴과 목소리를 조작해 공격하거나 흠집을 내는 일도 종종 벌어지고 있어요.

(11쪽) 읽기 후_생각 펼치기 : 신문 기사 만들기

(예시 답안)

가짜 뉴스를 만든 수프 사장의 최후

츄니 수프 사장 츄츄니는 폭우가 내렸던 X월 XX일 아침 영업 종료 팻말을 내걸었다. 같은 날 오후 도망치듯 타란틀라 마을을 떠났다. 그가 마을을 떠난 배경에는 악의적인 가짜 뉴스가 있다. 츄츄니는 가게 손님이 줄어들자 강충거미 마을 팔코미 할머니에 대한 가짜 뉴스를 만들었다. 할머니가 영원히 살기 위해 수프에 어린 거미들을 넣고 꿀 인다는 것. 이를 사실로 믿은 거미들은 팔코미 할머니를 비난했다. 츄니 수프에 다시 손님이 모여들었고 츄츄니의 계획은 성공하는 듯했다. 하지만 8다리일보의 시민 기자 휘강의 노력으로 그 계획은 실패로 돌아갔다. 츄츄니를 의심한 휘강은 츄니 수프에 아르바이트로 들어가 잠입 취재를 벌였다. 그 결과 츄츄니의 컴퓨터에서 결정적 증거를

발견했다. 촌츨니가 생성형 AI를 이용해 가짜 뉴스를 만든 기록이었다. 8다리일보는 이 증거를 바탕으로 팔코미 할머니의 결백을 세상을 알렸다. 팔코미 할머니는 누명을 벗었고, 촌츨니는 폐업이라는 짓값을 받았다. 초보 시민 기자의 정의를 향한 열정이 내린 마땅한 짓값이었다.